

# ‘아트:광주:19’ 예정대로 열린다

내달 19~22일 김대중센터  
국내·외 89개 갤러리 참여  
3개 특별전·작가부수도 운영

제10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19)가 오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아트:광주:19는 광주에총이 주관하며 ‘one piece-one peace’를 주제로 김대중컨벤션 3개관과 콘코스홀, 열린홀을 모두 사용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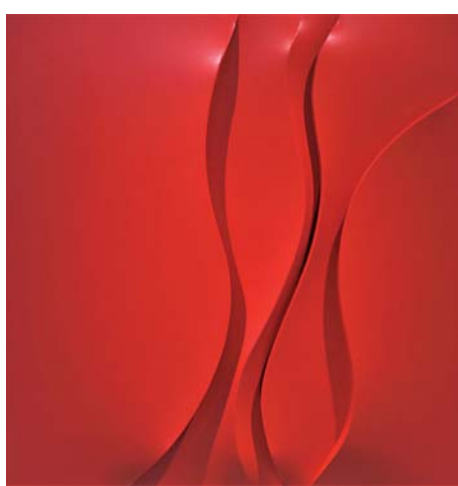
국내 갤러리 71곳과 13개국 해외 갤러리 18곳 등 89개 갤러리 부스가 관객을 맞이한다. 국내 갤러리로는 우선 초대형 식으로 참여하는 학교재와 박영덕 화랑, 조선화랑이 눈에 띈다. 서울·부산·경기·경남·경북·청주·제주등에서 참여하고, 광주에서 14곳, 전남에서 4곳의 갤러리가 참여한다.

해외 갤러리로는 지난해 참여하지 않았던 스페인, 페루, 독일,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이탈리아에서 1곳씩 갤러리들이 참여하며 국가별로 더욱 다양해졌다.

예년과 같이 작가 부수도 운영된다. 작가 부수는 아트페어 형식에 맞지 않는다



강요배 작 '연풍(蓮風)'



쥬세페아마디오 작 'BRUMA-ROSSO'



이조흠 작 'Blue 1'

며 그동안 정체성 논란이 일어오기도 했지만 광주만의 특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부수는 작년보다 20여개가 줄어든 79개로 운영된다.

특별전으로는 남종문인화의 맥을 찾는 기획전과 국내외 청년작가 10명의 실험작을 만나는 '정년! 이상(異常)하고 이상(理想)하라!'전이 마련된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미국 작가 데이비드 장의 대규모 설치 작품과 국내 작가 전덕진·김봉수·왕광현·

김승우·우성립의 설치작품도 전시장 곳곳에 세워진다. 이밖에 아트마켓과 체험존을 포함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올해 아트:광주:19는 주관사 제공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지난 6월 광주에총이 운영단체로 선정되며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아트:광주를 주관하던 광주미술 전임회장의 보조금 부실 정산으로 페어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고, 올해 유죄판결 확정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던 미

협의의 주관 자격이 박탈되는 등 우려곡절 속 행사를 꾸리게 돼 미술계 안팎의 우려가 컸다.

광주에총 임원시 회장은 "아트:광주:19가 지역미술 창작기반 활성화와 다양한 잠재적 컬렉터 발굴이 가능한 미술시장 기반을 확립하도록 주력하겠다"며 "지난해 행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그 성과를 이어 예방광주의 문화의식을 선도할 수 있는 시민 중심 미술 축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여신, 시벨레스의 분수'

## 여행, 또 다른 의미와 풍경들

이강하미술관 '이강하, 삶의 여행자' 전

이강하미술관은 '이강하, 삶의 여행자' 전시를 오는 10월 3일까지 진행한 다.

고 이강하 화백은 1988년대부터 2004년까지 매년 아시아, 유럽, 지중해, 중남미, 인도, 러시아 등 각국을 돌면서 세계 해외풍물들을 작품으로 남기고 지역 일간지에 작품과 더불어 해외풍물 여행기를 장기간 기고했다.

일반적인 여행 스케치와는 달리 회화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로 각국의 다양한 민족들의 풍습과 문화를 담아내면서, 각 민족별 특징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작품은 캔버스 안 화면에 다양한 이미

지들을 조합해 재구성한 방식으로 각 민족 풍물의 주제를 부각시키며, 시각적 긴장감과 함께 대상의 리얼리티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이 화백의 대표적인 무등산, 영산강, 맥 연작과는 다른 느낌의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예술가가 여행자의 시선에서 재해석한 지중해·유럽·인도·중국의 특별한 해외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오는 14일(오후 3시)에는 제1회 이강하학술세미나 '맥(脈), 이강하 삶과 작품세계'가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와 공동 주관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74-8515. /이연수 기자

# 마스터즈수영대회기간 ACC 이런 전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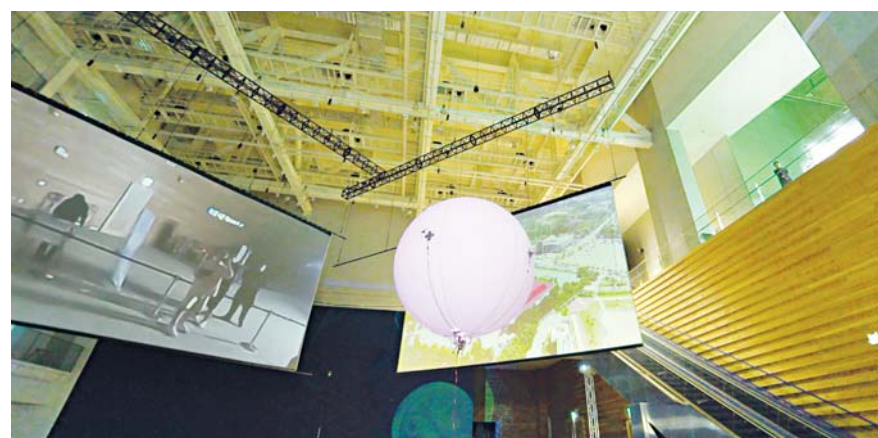
공중부양 로봇 창·제작 시연회  
미디어월 '야생의 정신' 전

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ACC에서 대회 연계 행사로 공중부양 로봇 '심해' 시연회와 물의 근원과 다양한 형태를 시각화한 미디어 아트 작품 '야생의 정신' 전시가 진행된다.

◇로봇기술과 예술을 실험하다 '심해(THE BLUE SEA)'

ACC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난해부터 융복합 공연·전시에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중부양 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ACC 복합1관에서 오는 18일까지 열



공중부양로봇 시연회 '심해(THE BLUE SEA)'

리는 이번 시연회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로봇의 움직임, 내·외부 조명 및 사운드의 상호작용 기술,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한 관람객과의 상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심해'는 관객이 바다 깊은 곳 풍경을 바라보는 컨셉으로 심해 속 해파리의 여행 및 사운드의 상호작용 기술,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한 관람객과의 상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관객반응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최종 로봇을 개발하는 것

이 목표다. 올 연말, 쇼케이스를 통해 최적화 디자인과 제어시스템 기술이 반영된 공중부양 로봇 '심해(The BLUE SEA)'를 다시 만나볼 수 있다.

◇물, 미디어 아트로 상상하다 '야생의 정신(Wild Spirit)'

ACC 아시아문화광장 미디어월에서는 지난 3일부터 미디어 아트 그룹 엠프티하우스(Empy House, 최규원·강연은·조재준)의 '야생의 정신(Wild Spirit)'이 선보이고 있다.

오는 11월까 밤 8시부터 1시간동안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물이 가진 성질과 변화를 묻는다. 자연 환경에서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물을 주제로 미디어를 통해 물의 정신을 시각화 한다.

문의 1899-5566. /이연수 기자

# '한국관광의 ★' 추천해 주세요

문체부, 내달 8일까지 접수...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9월 8일까지 '2019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돼왔다.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50여 개의 관광자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올해부터 한국관광의 별은 종전의 형태별 분야·부문 체계에서 벗어나, 매력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본상과 특별상을 시상한다.

본상은 유·무형의 형태나, 숙박·음식·시장 등 세부 부문을 막론하고 ▲본래의 매력이 뛰어난 관광자원 ▲새로운 콘셉트와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 관광자원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가 충분한 관광자원 중에서 4개를 선정해 시상한다.

특별상은 ▲잠재력이 높아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신규 관광자원 ▲방송 분야에서 한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프로그램 ▲대중문화 전반의 공로로 한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각 1개씩, 최대 3개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민 누구나 본상과 특별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2월 중에 개최된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총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